

# “IT 대장주 옛말?”… 코스피 랠리에도 힘 못 쓰는 네카오

(네이버+카카오)

올해 실적 늘었지만 주가 떨어져  
본업 둔화·AI 성과 불확실성 우려  
증권가 “AI 수익화가 핵심 변수”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상승 흐름 속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네이버·카카오’ 관련 이미지.

한때 ‘IT 대장주’ ‘AI(인공지능) 대표주’ 등으로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증시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11% 상승한 4만1800원에 마감했다. 연초 이후 카카오 주가는 30.45% 하락했다. 네이버는 4.18% 상승한 19만9500원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17.73%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가 종가 7800선을 다시 넘기는 등 장밋빛 랠리와 대조적인 성적이다.

카카오는 코로나 불장이었던 2021년 6월 24일 장중 17만3000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후 4년째 10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 주가는 5만~6만원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임명되며 주가가 29만8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현재는 고점 대비 약 33% 하락한 상태다.

실적 보다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탓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2411억원, 영업이익 54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7.2%씩 성장한 수치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다소 약했다. 카카오도 1분기 기준 역대 최

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 1조 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거뒀으며, 각각 11%, 66%씩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향방이 AI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이날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28만원으로, 카카오는 8만8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이버에 대해서 이종건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본업 성장 둔화 국면 속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사업 축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지면 내 광고 도입 후 광고 성장률의 구조적인 회복, 신규 수익 모델의 가시화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수익 창출로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광고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커머스 광고가 그동안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높은 기저 부담으로 향후 매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라며 “하반기 AI 탭·브리핑을 중심으로 광고 지면을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 광고와의 매출 잠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글로벌 빅테크와 같이 광고 업황 회복이 동반된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의 개선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본업보다는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주요하다”며 “본업의 이익 기여가 전

체 영업이익을 이끌어 가는 시점까지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트래픽 확보가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주가는 AI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이전트 AI의 수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짚었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으로 기울고 있던 하나만약 단독 발행을 허용해 준다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할 수 있어 온전한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파트너십을 진행, 진입 장벽을 낮춰 기존 국내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강한 유통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 역시 신사업 성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세계 혜택에 흔들린 서학개미… 해외투자금 2조 국내 복귀

미국 빅테크·레버리지 ETF 매도  
이달 말까지 양도차익 100% 공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미국 레버리지 ETF를 팔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다. 지난 3월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2조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세계 혜택이 해외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출시 이후 지난 19일까지 누적 가입 계좌 수가 24만2856좌, 총 잔고는 1조94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 잔고는 1조2129억원에 달했다.

RIA는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예탁금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는 기본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RIA를 활용하면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IA 매매종목 현황〉(3월 23일~5월 8일)

| 순위 | 종목명                    | 매도액(억원) |
|----|------------------------|---------|
| 1  | 엔비디아                   | 1801    |
| 2  |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SOXL)  | 947     |
| 3  | 테슬라                    | 504     |
| 4  | 알파벳A                   | 451     |
| 5  | 애플                     | 365     |
| 6  | 팔란티어                   | 282     |
| 7  | PROSHARES QQQ 3X(TQQQ) | 195     |
| 8  | INVECO QQQ TRUST(QQQ)  | 177     |
| 9  | 마이크로테크놀로지              | 153     |
| 10 | AMD                    | 150     |

\*출시일 이후 5월 8일까지 누적 매수금액에서 누적 매도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장 큰 혜택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5월 안에 완료되면 양도차익의 100%가 공제된다. 사실상 해당 차익에 대해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국내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이후 공제율은 6월부터 7월 말까지 80%, 8월부터 연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세계 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국내주식 등 순매수\* 상위

| 순위 | 종목명                 | 순매수액(억원) |
|----|---------------------|----------|
| 1  | 삼성전자                | 780      |
| 2  | SK하이닉스              | 667      |
| 3  | 현대차                 | 146      |
| 4  | KODEX 200           | 134      |
| 5  | TIGER 반도체TOP10      | 123      |
| 6  | 삼성전자우               | 121      |
| 7  |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 111      |
| 8  | KODEX AI전력핵심선택      | 75       |
| 9  | TIGER 200           | 71       |
| 10 | 두산에너지빌리티            | 54       |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실제 투자자들은 미국 빅테크와 고위험 레버리지 ETF를 대거 매도했다. 지난 5월 8일까지 기준 해외주식 매도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1801억원),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947억원), 테슬라(504억원), 알파벳(451억원), 애플(365억원) 순이었다.

팔란티어, TQQQ, QQQ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780억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됐고, SK하이닉스가 6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 KODEX 200, TIGER 반도체TOP10 등도 주요 매수 대상이었다. 해외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성장에 투자하던 자금이 국내 반도체 대표주와 관련 ETF로 이동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가입 계좌 기준으로 40대가 31%, 50대가 26%를 차지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잔고 기준으로는 50대 32%, 40대 27%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30대 가입 비중도 21%에 달해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시장에 머물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국내 투자 상품을 통해 환율 안정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래에셋자산운용 美나스닥100 ETF 순자산 10조 돌파

미국 기술주에 장기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 100 ETF’ 순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 가운데 처음으로 달성한 기록으로, ‘TIGER 미국S&P500 ETF’에 이어 미국 대표지수 투자 시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10조 2916억원으로,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 가운데 순자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 가운데 최초로 순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이 최근 18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도 10조원을 돌파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시장 대표형 ETF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2021년 순자산 1조원, 2025년 5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데 이어 약 1년 만에 5조원이 증가하며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대표지수 장기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10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 상장 앞둔 스페이스X… 머스크 의결권 85%

미국 SEC에 투자설명서 제출  
차등의결권으로 절대 지배력 유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전체 의결권의 85.1%를 보유하게 돼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일반 투자자에게 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는 클래스A 주식을 발행하고, 머스크와 일부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했다.

이 구조에 따라 머스크는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해임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주주들의 법적 청구 역시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

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에서 개인 투자자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하며, 개인 투자자 15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12일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재무 현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46억94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19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32억5700만달러를 기록하

며 실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공지능(AI) 부문 매출은 8억1800만달러, 우주 발사 부문 매출은 6억1900만달러였다.

스페이스X는 미래 사업으로 소행성 채굴, 달과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 행성간 여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화성에 영구 기지를 건설하고 100테라와트(TW) 규모의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머스크의 대규모 주식 보상을 이러한 장기 목표 달성 여부에 연동된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가치를 약 1조7500억달러로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